

# ‘박수 받는 꼴찌’ 광주FC

## 올 평균관중 1286명 ‘응원 열기’

올 시즌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 스포츠팀들은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고질적인 투타 동반자 부상 악재로 졸전을 이어가며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광주FC도 최하위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팀 처지는 비슷하지만 관중석 분위기는 다르다.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열기는 식어가고 있지만 광주축구전용구장은 여전히 뜨겁다.

KIA는 가장 최근 홈경기였던 지난 주중 SSG전에서 더블헤더, 날씨, 주중 경기라는 악재 속세 경기에 2414명의 관중을 동원 하는데 그쳤다.

지난 19일, 지난 5월 23일 수원과의 홈경기 이후 오랜만에 관중석이 열린 광주축구전용구장은 1364명이 입장했다.

한낮 더위가 가시지 않은 4시 30분 경기, 지붕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도 광주팬들은 관중석을 지키며 ‘꼴찌’ 광주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왔다.

올 시즌 광주의 평균관중수는 1286명으로 인천(1847명), 제주(1615명), 강원(1489명)에 이어 10위다. 이어 성남(1159명)과 수원FC(646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평균관중 1위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4124명), 2위는 수원(2944명)이다.

최하위의 성적, 가장 최근에 개장했지만 시설은 가장 좋지 않은 경기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광주의 1286명은 의미있는 수치다. 뜨거운 그라운드도 관중을 부르고 있다.

정쟁한 ‘골리앗’ 기업 구단 사이에서 광주는 ‘다윗’의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연봉 총액은 45억 2423만원(1인당 평균 1억1600만원)으로 K리그1 꼴찌였다. K리그2까지 계산해도 전체 14위, 선수단 연봉만으로 169억 629만원(1인당 평균 4억 3349만원)을 지출한 1위 전북 연봉 총액의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팀 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플레이

를 하기 때문에 적장들은 하나 같이 “쉽지 않은 승부였다”며 광주를 “까다로운 상대”로 꼽는다.

4승 3무 12패(승점 15)를 기록했지만 쉽게 지는 경기는 거의 없었다. 선수들의 투혼과 함께 치열한 경쟁도 광주를 빛나게 하는 힘이다.

올 시즌부터 고향팀을 지원하고 있는 김호영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베스트 11은 없다”며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낮은 선수층이라는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으로 내부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나이, 경험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에 새로운 스타가 연이어 탄생하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순환 효과가 나고 있다. 금호고라는 탄탄한 기반도 광주에는 큰 전력이다.

이 두 가지 장점이 합쳐져서 19일에는 허을이라는 새 얼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허을은 지난 5월 30일 포항 원정에서 후반 막판 투입,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19일에는 첫 선발 출장에 나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달렸다.

허을의 가능성과 최근 컨디션에 주목한 김호영 감독이 외국인 선수 헤이스가 아닌 허을을 선발로 내세웠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자 당초 계획과 달리 풀타임으로 역할을 맡긴 것이다.

기술과 스피드로 승부 하는 엄원상, 엄지성, 이희균에 이어 192cm의 큰 키와 힘을 활용한 허을까지 등장하면서 광주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면서 이란저런 사연이 있는 좋은 선수들도 광주를 찾고 있다.

‘캡틴’으로 선후배를 아우르고 있는 김원식과 19일 ‘PK’쇼를 펼친 김종우, 수문장 윤보상 등도 광주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며 또 다른 축구 인생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또 몸을 날리는 플레이로 팀을 한데 묶고 팬들의 박수갈채를 이끌고 있다.

쉽게 물러나지 않는 플레이와 팀워크, 그리고 미래의 자원들이 광주를 박수받는 꼴찌로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와 서울의 K리그1 14라운드 순연경기가 열린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 1364명의 관중이 입장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광주FC 제공>

## “첫번째 PK 실축 뒤 지옥을 봤다”

### PK로 동점골...광주FC 김종우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광주FC 김종우는 “지옥을 봤다”며 웃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순간, 광주에는 잊지 못할 ‘PK’쇼가 펼쳐졌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K리그1 2021 14라운드 서울과의 순연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만들어진 김종우의 페널티킥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K리그에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은 종종 나온다. 하지만 광주의, 김종우의 동점골은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았다.

지난 5월 30일 포항전 0-1패배와 함께 광주는 5월을 1무 5패로 마무리했다. 최하위에서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한 광주는 19일, 코로나19로 미뤄진 14라운드 경기를 위해 다시 그라운드에 올랐다.

상대는 지난 3년 광주를 이끌었던 박진섭 감독의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서울도 최근 10경기 무승 부진에 빠진 만큼 두 팀은 전정 같은 싸움을 벌였다.

광주는 안방에서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지만 몇 차례 슈팅이 무위로 끝나면서 0-1패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추가 시간 4분도 점점 흘러가고 첫 선발 출장 경기에서 몇 차례 좋은 공세를 펼쳤던 허을의 마지막 헤더도 서울 골키퍼 양한빈 앞에 떨어졌다.

하지만 광주에는 기적 같은 휘슬이 울렸다.

주심이 잠시 경기를 멈추고 비디오 판독을 위해 움직였다. 온 필드 리브 결과 앞선 광주의 공격 상황에서 허을이 황현수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전반전 때리던 슈팅으로 서울을 괴롭혔던 김종

우가 키커로 섰다.

긴장감 가득한 상황에서 김종우가 슈팅을 날렸지만, 경기장에는 아쉬운 탄성만 가득했다. 김종우가 때린 공이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양한빈의 품에 안긴 것이다. 김종우는 그대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흔한 패배 스토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심은 다시 한번 광주의 킥을 선언했다.

김종우가 킥을 하기 전에 골키퍼가 움직였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광주에 다시 한번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예상과 달리 김종우가 또 골대 앞에 섰다. 김종우는 이번에는 골키퍼를 속이고 오른쪽으로 볼을 차 넣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면서 드라마 같은 비저비타골이 완성됐다.

김종우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부담이 컸다. 못 넣고 돌아봤는데 선수들이 다 고개 숙이고 앉아있었다. 순간 지옥을 봤다”며 악몽 같은 실축 순간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믿음과 격려에 그는 결국 승점을 만들어냈다.

김종우는 “확신이 안 선 상태로 차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 두 번째 차려고 하는데 선수들이 다가오길래 바뀌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했다(웃음). 생각 비우고 하라고 해서 많은 생각 안 하고 찼는데 잘 된 것 같다”고 웃었다.

승리 같은 무승부로 반전을 이룬 광주는 좋은 분위기에서 남은 A매치 휴식기를 보내고 반전의 여세를 꿈꾸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무대는 좁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 박민지가 20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 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세’ 박민지, 메이저 품었다

## KLPGA 한국여자오픈 우승

### 올 시즌 9개 대회서 5승 수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 박민지(23)가 여자 골프 최고 권위의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 우승 트로피까지 품에 안았다.

박민지는 20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박현경(21)을 2타 차로 따돌린 박민지는 이번 시즌 들어 9개 대회에서 무려 5승을 수확하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신지애(33)가 가진 KLPGA투어 시즌 최다승 기록(9승)도 넘어설 태세다.

지난 13일 셀트리온 링크 마스터즈에 이어 2주 연속 우승한 박민지는 통산 우승 횟수도 9회로 늘렸다.

이번 우승으로 박민지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까지 정복하는 기쁨을 누렸다.

박민지는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아 시즌 상금을 무려 9억4480만원으로 불렀다. 상금랭킹 1위와 대상 포인트 1위를 굳게 지킨 박민지는 KLPGA투어 시즌 최다 상금 기록(박성현, 13억3309만원) 경신도 바라보게 됐다.

전날 한국여자오픈 54홀 최소타 기록(201타)을 세웠던 박민지는 한결 어려워진 핀 위치에도 72홀 최소타 타이 기록(271타)까지 세웠다.

박민지는 박현경과 18홀까지 숨막히는 우승 경쟁을 벌였다. 4라운드에 나선 선수는 66명이었지만, 우승 경쟁은 진작부터 박민지와 박현경의 대결로 압축되어 있었다.

15언더파의 박민지와 14언더파의 박현경에 이어 3위 이정민(29)은 박민지와 7타나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박현경이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박민지는 3번(파3), 4번 홀(파4) 연속 보기를 저어내며 뒷걸음쳤다. 빛나갈 일이 없어 보이던 아이언샷이 거리와 방향이 맞지 않았다.

5번 홀(파4)에 박현경은 3m 버디 퍼트를 떨구면서 2타차 선두로 역전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박민지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6~8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쓸어 담아 선두를 되찾아왔다.

박현경은 11번 홀(파3)에서 2m 버디를 잡아 공동선두로 올라왔지만, 박민지는 15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핀 옆 한 발걸음 거리에 붙여 다시 1타 앞섰다.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가장 쉬운 16번 홀(파5)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민지가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고, 네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2m 퍼퍼트를 놓쳤다.

다시 한번 공동 선두를 허용한 박민지는 18번 홀(파4)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158야드를 남기고 핀을 곧바로 겨냥해 때린 두 번째 샷을 핀 앞 1m 거리에 떨구 단숨에 승부를 갈랐다.

티샷을 왼쪽으로 당겨진 박현경은 세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2주 연속 박민지에 이어 준우승했다.

이정민은 1타를 잃었지만 여유 있게 3위(7언더파 277타)를 지켰다.

/연합뉴스

## 양현종, 국내 복귀 대신

### 텍사스 마이너리그 선택

원손 투수 양현종(33)이 국내 복귀 대신 다시 도전의 길을 택했다.

양현종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라운드 록 유니폼을 입었다.

존 블레이크 텍사스 구단 홍보 담당 부사장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현종은 라운드 록 소속 선수가 됐다”고 알렸다.

양현종은 지난 18일 텍사스로부터 방출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조처됐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에 트레이드되거나, 방출, 혹은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했다.

일각에선 KBO리그 복귀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뛰기로 했다.

사실 MLB를 향한 양현종의 각오는 출발부터 남달랐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마이너리그 신분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맺고 미국 땅을 밟았다.

그는 MLB 스프링캠프에 초청받았지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다. 마이너리그 라운드 록 소속으로 올 시즌을 시작했다.

양현종은 MLB에서 3패 평균자책점 5.59의 성적

/연합뉴스

# “축구는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경기”

## 유로 조별리그 F조 2차전

### 독일, 포르투갈 4-2 완파

‘전자군단’ 독일이 2020 유럽축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시원한 역전승을 거뒀다.

독일은 20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카이 하베르츠, 로빈 고첸스의 득점포에 상대 자책골 두 골을 쏘아 포르투갈을 4-2로 완파했다.

전반 15분 만에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은 독일은 상대 자책골 두 골을 유도하며 승부를 재빨리 뒤집었다.

독일은 포르투갈과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며 전적의 면모를 보였다.

1차전에서 프랑스에 0-1로 패했던 독일은 이로써 대회 조별리그 첫 승리를 챙겨 F조 2위(승점 3)로 올라섰다.

1승 1패를 거둔 포르투갈도 승점은 3으로 같지만, 이날 패배로 상대 전적에서 밀려 3위가 됐다.

독일은 초반부터 포르투갈을 강하게 압박했다. 전반 5분에는 고첸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날아오르며 찬 슈팅이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5분 뒤에는 하베르

츠의 원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위기를 넘긴 포르투갈은 전반 15분 호날두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역승 과정에 포르투갈 진영에서부터 재빠르게 질주한 호날두는 디오구 조타의 패스를 받아 골문 앞에서 원발로 마무리했다.

유로 통산 최다 득점자인 호날두는 이번 대회 3호 골로 자신의 통산 득점을 12골로 늘렸다.

더불어 107번째 A매치 득점을 올려 이 부문 역대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109골)와 격차를 단 두 골로 좁혔다.

앞서 같은 조의 프랑스와 헝가리는 1-1로 비겼다.

1승 1무로 승점 4를 쌓은 프랑스는 조1위에, 헝가리는 조 최하위(승점 1·1무 1패)에 자리했다.

F조의 스페인과 폴란드도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친 스페인은 E조 3위(승점 2)에, 1무 1패를 기록한 폴란드는 최하위(승점 1)에 랭크됐다.

선제골은 전반 25분 스페인이 기록했다. 그러나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후반 9분 카밀 유지비야크의 크로스를 받은 그는 헤딩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연합뉴스